Game p/19

15살 리니지 누적매출 2조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제2462호 www.metrobusan.co.kr

Sports p/22

근우도 왔고 용규도 왔고

함박눈 속 자선냄비 시종식 "올핸 펄펄 끓겠네"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제85주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해 기부금을 넣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 홍보대사인 걸그룹 '크레용팝'과 구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다음달 2일부터 모금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정부 "이어도는 영토 아니다"

정부가 이어도 사태는 국제간 영토 문제가 아니고 경제 수역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며 "이어도 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나 대만과 협력할지를 묻는 말에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김민준기자

문자·메일 오면 가발이 '부르르'

소니, 사진촬영·혈압체크도 가능한 '스마트 가발' 특허 - '입는 컴퓨터' 경쟁 상상 초월

직장인 김현민(가명)씨는 대머리는 아니지만 외출할 때마다 가발을 꼭 챙긴다. 멋진 스타일을 완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따로 꺼내지 않아도 필요한 사진을 찍고 혈압·맥박 등 건강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덕분이다. 게다가 e메일이나 문자가 도착하면 가발 머리카락 진동으로 바로 알려준다. 가발만 쓰면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SF영화 같은 삶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스마트 시계·안경에 이어 스마트가발까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입는 컴퓨터)'가 속속 등장하면서 조만간 온몸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IT 전문매체 엔가젯은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열감측정·위성항법장치(GPS)·프레젠테이션 등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가발(SmartWig)'을 개발해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출원 서류에 따르면 스마트 가발은 동물의 털과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구성된 일반 가발과 모양이 비슷하다. 가발 속에 카메라·레이저포인터·GPS 등을 탑재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안경과 통신을 할 수 있다. 가발 머리카락 진동으로 e메일·문자메시지 수신을 알려주고 뇌파·체온·혈압 등을 감지하는 센서도 들어있다. 특히 눈썹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보다 앞서 일본 자동차업체인 닛산도 23일 개막한 '2013 도쿄모터쇼'에서 스마트 글라스 '3E'를 선보였다. 추억의 만화 '드래곤볼'에 나왔던 '스카우터'와 비슷한 형태의 이 제품은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고 음성 명령으로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 초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2013 웨어러블 컴퓨터 경진대회'에서도 옷이나 안경에서 벗어난 다양한 제품들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스마트 헤어밴드·신발·장갑도

얼굴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헤어밴드, 악기없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해 다양한 악기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장갑과 신발, 시각 정보를 촉각 정보로 변환해주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선보인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는 목소리로 통화 연결·앱 실행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구글의 스마트 안경인 '구글글라스'는 사진·동영상 촬영,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아이리버는 이용자의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이동거리·이동 속도, 칼로리 소비량 등을 추적할 수 있는 헤드폰을 출시했다.

이처럼 업체 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향후 5년 내 지금보다 5배 이상인 19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까지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폰 이을 차세대 IT기기"

유회준 카이스트 교수는 "웨어러블 컴퓨터는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IT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며 "2~3년 내에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웨어러블 기기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정말 '국민 건강 위해서'일까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과학부 기자>

보건의료단체들이 최초로 힘을 모으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직역 간의 갈등을 겪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까지 자총 6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이 그동안 화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던 보건의료단체들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이들이 화합할 수 있는 나비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5개 보건의료단체와 관련 노조가 최초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원격의료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이들의 입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화합이 이번 한 번뿐인 기회주의로 작용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대명제는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갈등 대신 화합이라는 모습을 보이며 이제야 겨우 올바른 자세를 갖춘 셈이다. 원격의료 반대 대신에 거세고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이 확고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언제나 한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능 성적표 '함박웃음'… 전국 33명 만점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수원여고 한 수험생이 대기 수능 성적표를 받아 들고 미소 짓고 있다. 이번 수능에서 5개 과목 모두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만점자는 목포 홍일고 출신 재수생인 전봉열(20)씨가 유일했고, 인문계열 수험생은 32명이 만점을 받았다. /연합뉴스

'철밥통' 비우는 공공기관

고용부 산하 '건설공제회' 임원 연봉 30% 삭감… 고강도 쇄신 신호탄 분석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원진 연봉을 30% 자진 삭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질타한 뒤 엄격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향후 이 같은 쇄신 움직임이 다른 기관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내년도 임원 연봉을 올해 대비 평균 30.1%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급 간부는 평균 10% 삭감하고, 3급 이하 직원(노조원)은 연봉의 3%를 반납키로 했다.

올해 2억4543만원인 이사장 연봉총액은 내년에 1억7552만원으로 28.4%(6961만원) 줄어든다. 전무이사는 1억4344만원으로 31.7%(6928만원), 감사는 1억4810만원으로 30.5%(6500만원) 감소했다.

판공비와 업무 추진비도 대폭 줄어든다. 올해 1억6200만원에 달했던 판공비는 내년에 전액 폐지되고, 업무 추진비는 1억4760만원으로 18.0%(3240만원), 홍보조사경비는 1680만원으로 무려 86.3%(1620만원) 감축됐다. 평균 삭감률이 64.6%에 달한다. 공제회는 지난달 15일에도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위해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노사 합의를 마쳤다.

업무추진비를 국회 전·현직 보좌관을 접대하는 데 사용해 국감 중 논란을 일으켰던 정봉국씨는 사직 처리됐다.

/김민정기자 mkim@metroseoul.co.kr

1년 키운 '돼지' 잡는 날 42개 구립어린이집 영유아들이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년간 모아온 돼지저금통을 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구청 '채동욱 의혹' 가족부 불법 조회

서울 서초구청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서 관련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초구청의 조모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 직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초구청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조 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조회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배경에 권력기관 등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추적 중이다.

특히 서초구청은 관련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상 정해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열람 조회를 감행했다.

관련 법규상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민정기자

국민은행 비리 '눈덩이'

주택기금 횡령액 100억 넘는듯 … 검찰, 비자금 의혹·부당대출 등 수사착수

검찰이 KB국민은행의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둘러싼 직원들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금융감독원에서 25일 통보를 받아 금융조세조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특별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일단 검찰에 대한 비위 사실 통보는 전 현직 임직원들의 개인 비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금감원은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자금 세탁,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 수취, 서울 본점의 9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 의혹 등에 대해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특별 검사는 2~3주 간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고객이 맡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시중에 내다 팔아 90억원을 챙겼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횡령액은 100억원을 넘어섰고 연루자도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수천억원대 부당 대출을 하고 수수료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부를 국내로 들여와 상품권 구입 등 세탁을 거쳐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국민은행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기사건도 곧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임직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27일 오후 고 채명신 장군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병 묘역 묻히는 '베트남전 영웅'

채명신 장군 유언대로

지난 25일 별세한 채명신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이 "나를 파월 장병이 묻혀 있는 묘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국방부는 27일 "별세한 장군은 현충원에 마련된 장군 묘역에 안장되나 고인은 별세하기 전 유족에게 사병 묘역에 묻히길 희망했다"며 "장군이 자기 신분을 낮춰 사병 묘역에 안장되길 희망한 것은 현충원 설립 사상 최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서울현충원 사병 묘역에 안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전 영웅'인 고인이 부하들과 함께 묻히게 될 묘지 크기는 일반 사병과 같은 3.3㎡다.

고인은 1948년 육사 5기로 임관한 이후 5사단장, 주월 한국군사령관, 2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6.25 전쟁 당시 2사단 29연대 중대장, 유격대장, 7사단 5연대장, 3사단 참모장 및 22연대장으로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해 전공을 세웠다. /조현정 기자

빚지고 시작하는 직장생활

20~30대 39% 사회진출 전 부채 … 평균 1564만원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직장을 구하기도 전부터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최근 20~30대 남녀 17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9.1%(693명)가 사회 진출 전 빚을 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금액은 평균 156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빚 규모는 1000만~2000만원(28.7%), 500만~1000만원(23.3%), 2000만~3000만원(14.6%), 100만~300만원 미만(9.7%), 300만~500만원(8.7%), 3000만~4000만원(6.4%) 순으로 나타났다.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을 지닌 2030세대도 12.6%나 됐다.

빚을 지게 된 주원인으로는 '학자금 대출 등 학업 관련비'(71.1%)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취업 준비(5.5%), 식비 지비 등 생활비(4.9%), 주거 비용(2.3%), 자동차 구입(1.2%), 부모님 부양(1.2%) 등이 뒤를 이었다.

돈을 빌린 곳은 '정부'(54.7%·복수 응답), '제1금융권'(33%), '제2금융권'(14.3%), '가족 등 친척'(9.1%), '카드 연체'(6.5%), '대부업체'(5.5%) 등으로 조사됐다. /이국현 기자 kmlee@

연간 관광객 1000만명…하와이 제친 제주도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아온 하와이와 발리도 이루지 못한 '연간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6일 현재까지 997만286명으로, 28일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미국 하와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키나와 등 세계의 유명 섬 관광지도 세우지 못한 대기록이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연간 관광객은 하와이 799만8000명, 발리 898만5600명, 오키나와 583만6000명으로 제주도 969만1000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제주 관광객은 1966년 1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1983년 100만 명, 2005년 500만 명을 돌파했다. /김태진 기자 [illegibl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마젤란 태평양 조우

1520년 11월 28일 인류 최초의 지구일주 항해의 선장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을 만났다.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선박 다섯 척에 승무원 270명을 싣고 출항한 지 1년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남하했다가 알 수 없는 한 해협(훗날의 마젤란 해협)을 통과한 마젤란은 새로이 펼쳐진 바다가 기나 긴 항해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잔잔하고 평화로워 '태평양'이라 이름 지었다. 희망하던 인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괌과 필리핀에 도착한 마젤란은 원주민과 싸우다 41세에 전사했다.

부산항 내년 크루즈 143회 관광객 25만명 최다 전망

내년에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 승객이 2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내년에 예정된 크루즈선 입항 횟수가 올해보다 43% 늘어난 143회이며, 이들 크루즈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선박별로 보면 RCCL(Royal Caribbean Cruises)사의 마리너호(14만t)가 30회, 보이저호(14만t) 16회, 코스타 크루즈사의 아틀란티카호(8만t) 22회, 빅토리아호(7만5000t)가 23회 입항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항 횟수는 연평균 3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크루즈 승객 역시 2009년 2만6000명에서 올해 19만6000명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항은 95회로, 이들 선박의 항비와 관광객 지출 등을 계산해보면 지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158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뉴시스

칠면조·글루바인 즐겨볼까 웨스틴조선 특선 프로모션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뷔페 레스토랑 까밀리아에서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1일까지 크리스마스&새해맞이 특선 프로모션을 마련한다.

할전복과 랍스터로 웰컴 메뉴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정신을 위한 별미 칠면조 바비큐와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와인 글루바인을 함께 선보인다. 또 칠면조를 통으로 구워내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여 담백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전통한 슈톨렌과 이탈리아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기념해 먹던 케이크 파나토네, 크리스마스 쿠키 등 다양한 디저트도 선보인다. 가격은 점심 6만9000원, 저녁 7만9000원(세금 봉사료 포함)이다.

문의 및 예약 051)749-7434

사하구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 열려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는 지난 26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제3회 사하구 청소년 영어스피치 대회'를 개최했다.

경성대 경영대학…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성도)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부산경남연합회(회장 김경철)는 지난 26일 오전 경보관 7층 회의실에서 가족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발전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자갈치시장을 글로벌 명소로"

시, 184억 들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 · 인근 관광자원 연계 복합공간 조성

부산시는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북아 수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수산물 공급 단계부터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자갈치 수산 식품 기반시설의 재조성을 위해 영도대교, 용두산공원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항 내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도심형 관광 위판장 건립과 함께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었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앞으로 감천항 물류무역기지와 연계해 부산이 해양수산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수산명소화 사업에는 184억원이 투입된다.

물광장, 기반시설 조성과 노점상 환경 정비, 보행로 확보를 통한 시푸드 테마파크 건립 등 자갈치 일대를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명품 수산시장으로 재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자갈치가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이자 관광 명소임을 내세워 국비 50%를 확보했으며 내년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수산명소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과 주변 상인단체,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7년만에 영도대교 '번쩍'… 하루 1회 들었다놨다 도개쇼 한국 현대사의 애환을 담고 있는 부산 영도대교가 47년 만에 도개 기능이 복원돼 27일 오후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을 앞두고 영도대교를 통해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도개 가능 교량인 영도대교는 개통식 이후 매일 낮 12시부터 15분간 상판을 들어 올린다. /연합뉴스

<부산 수다 다 모여>

국내 첫 스토리텔링 축제 '부·수·다'

오늘 국제신문 대강당서 열려 … 개그계 대부 전유성 초대

부산의 숨어있는 스토리들이 텔링(telling)의 옷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는 지역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찾는 이른바 '스토리노믹스(Storynomics, 이야기 경제)'의 실험 무대인 '제1회 부산스토리텔링 축제'가 28일 오후 4시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문화콘텐츠개발원, 동서대 스토리텔링연구소, 국제신문 주관으로 진행된다.

행사 슬로건은 '부·수·다'다.

'부·수·다'는 '부산 수다 다 모여'의 줄임말로 알껍데기를 깨고 고정된 틀을 부숴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축제는 전시 체험(오후 4~9시)과 본 행사(오후 6시30분부터)로 꾸며진다.

눈여겨봐야 할 프로그램은 부산 지역 구·군 스토리텔링 쇼.

영도구의 '장사바위 이야기'(샌드아트), 남구의 '이기대의 두송이 꽃'(댄스), 강서구의 '칠점산(七點山) 이야기'(영상 텔링), 동래구의 '말뚝이는 왜 말뚝이인가?'(연행극) 등 네 작품이 무대에 올려진다.

지역 이야기와 음악(연극)을 접목한 뮤지컬링도 시도된다.

부산의 크로스오버 밴드 '토다(TODA)'가 부산의 정서를 담은 가락 등을 들려주는 시간을 가지며 극단 '자유바다'는 신작 '전설의 블루스'를 각색해 '스토리 음악다방'을 꾸민다.

부산에서 독이하게 스위스 음악을 연주하는 '살려 스위스' 팀도 이야기 난장에 가세한다.

특별히 이번 축제에는 경북 청도에서 철가방 극장을 운영 중인 한국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씨가 초대된다. 전씨는 이날 코미디로 '세상을 부수다'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이 바꾸는 도시 풍경을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놓고 구·군 스토리텔링쇼에 대해 촌평도 해줄 예정이다. 지역 스토리를 주제로 한 전시 체험 행사도 풍성하다.

또 광고 천재 이제석씨의 작품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히트한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들도 시민을 기다린다. /연합뉴스

부경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부경대학교가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Best HRD는 인적자원 관리 및 인적자원 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에 정부가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부경대는 지난 2010년 신규 인증에 이은 재인증을 받았다.

대학은 직원역량평가제도 등 객관적 인사를 위한 성과 혁림 중심의 인사제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중장기 역량 모델링 결과에 따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대학 행정영역 전반의 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한 학습 동아리도 부경대의 차별화된 인적자원 관리·개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정혜균기자 jhk@metroseoul.co.kr

석대동에 대규모 물놀이장 생긴다

부산 해운대구는 석대동 용기골 자연녹지 지역에 1만㎡ 이상인 대규모 물놀이장(워터파크)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동부산권에 제대로 된 물놀이 시설이 없고 경남과 울산지역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시설을 갖출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대구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워터파크 조성 계획을 마련, 내년 초 정부에 총 사업비(100억원)의 절반인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50억원은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분담하고 시설이 준공되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다.

해운대구는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 민간 자본을 유치,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부산독립영화제>

'재' '고양이들' 우수상

5일간 여정 막내려…예산부족 등 숙제남아

영화의전당 소극장 및 시네마테크관에서 진행된 '2013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가 지난 24일 4박5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영화제에는 개막작 조성봉 감독의 '구럼비 바람이 분다'를 시작으로 부산에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는 경쟁 부문, 인비트윈 딥 포커스, 장편영화 초청 부문, 후쿠오카 독립영화 초청, 한국독립영화제 연대 초청, 청소년영화 초청 부문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58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경쟁 부문 24편의 작품에서 올해의 우수상으로 오민욱 감독의 '재'와 서하연 감독의 '고양이들'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특별상은 김대황 감독의 '마트

2013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 수상자들

열 시장', 기술장의상은 곽으뜸 감독의 "되감기"가 차지했다. 또 여자 연기상 부문에서는 김진태 감독의 '대외전', 김대황 감독의 '마트 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배우 김미경과 최경문 감독의 '오늘'에 출연한 배우 박세지가 공동 수상했다. 반면 남자 연기상 부문에는 심사위원들이 합당한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해 수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관객상은 문창현 감독의 '나와 나의 거리'가 차지했다.

특히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국 독립영화의 공간성'이란 주제와 '한 일 독립영화의 배급 현황 및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또 김정범 음악감독과 정성욱 촬영감독의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부산독립영화협회 차민철 대표는 "지난해에 비해 많은 관객들이 2013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를 찾아줘서 기쁘고 즐겁다"며 "내년에는 더욱더 단단히 준비해 보다 나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전히 외연 확장과 안정적 기금을 위한 선결 과제인 영화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양학균기자 ikk@metroseoul.co.kr

만화로 보는 생물전 수산과학관 '만화로 보는 생물다양성' 특별전에서 관람객들이 만화로 그리는 생태복원도 자율 꾸미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다음달 8일까지 수산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진다.

中 110개사 부산 수출상담회

코트라 동남권 지원단은 27일 오전 9시30분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차이나 100 수출상담회'에 중국 글로벌 기업 110개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은 연 매출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중국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로 구성돼 상담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구매 품목은 IT·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 등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특화산업이 중심이다.

특히 참여한 중국 기업은 대부분 중국 전역을 영업권으로 하거나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어 구성은 IT·전기전자 분야 20여 개, 자동차 부품 15개, 도시 에너지·환경 분야 13개, 생활 미용용품 17개, 식품류 15개, 중국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7건 등 총 110개사다. /연합뉴스

건보공단 부산본부 '나눔 바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효) 건이강이봉사단은 내달 7일 명륜동 전철역 내 아름다운 가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위한 '아름다운 나눔을 위한 바자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이날 행사에는 조진효 부산지역본부장, 건이강이봉사단이 참여해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수집한 4000여 점의 바자 물품을 판매한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 재단에 기탁 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눔 바자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양학균기자

2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드림웍스 사옥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휴제진과 직원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오바마 '케어'해주는 할리우드

선거자금 26억원 들어줘

할리우드 스타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250만 달러(약 26억5000만원)를 모았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 상하원 합동 선거대책위원회가 마련했다.

전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의 저택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25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를 참가비로 내야 하지만 16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영화배우 다이앤 키튼과 새뮤얼 잭슨 부부, 톰 행크스 부부 등 할리우드의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가 끝난 뒤 존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농구광) 대통령에게 샷을 쏘는 요령을 가르쳐줬다"고 자랑했다.

유대계 거물 하임 사반의 저택에서 열린 만찬 행사도 어느 때보다 성대했다. 입장권 가격이 1만 6200달러로 비싼 편이었지만 120명이나 참석했다. 사반은 지난해 대선 때 오바마 캠프에 기금을 몰아줘 오바마가 재선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조선미기자

<전략 폭격기>

B-52로 중국 겁준 미국

사전통보 않고 방공식별구역 훈련비행 - 中 "황해·남해에도 설정할 것"

2010년 5월 극초음속 무인기 'X-51A 웨이브라이더'의 시험비행 당시 소개된 B-52 폭격기 /AFP 연합뉴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 정세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황해(서해)와 남해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다.

25일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남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공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군 고위 관계자들도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인줘 해군 소장은 25일 관영 중국중앙 TV에 출연, "우선적으로 동해를 설정한 것이고 황해와 남해에도 앞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곳이자 한국군이 군사 훈련을 자주 실시하는 지역이다. 중국이 실제로 이 지역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경우 양국이 심각한 외교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과 관련,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으름장을 놓자 일본은 '신 방위대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방위대강은 일본의 10개년 방위 계획으로 올 연말 확정된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신 방위대강 개요의 자위대 체제 항목에 '주변 해·공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미국은 25일 중국에 사전통보 없이 B-52 전략 폭격기 두대를 동중국해 상공으로 비행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정규 훈련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압박하기 위해 괌의 고도의 작전으로 움직였다. /조선미기자

100여명이 서로 거울보듯 쌍둥이 축제 '거울 쇼' 열려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쌍둥이들의 축제 '거울 쇼'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2010년도부터 시작된 거울 쇼에는 100여 명의 쌍둥이가 참가해 이색 코스프레를 선보였다.

코스프레 행진을 하기 위해 모인 쌍둥이 중에는 강력한 마녀, 금발 나에이터 백설공주 등 다양한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있었다. 네 살배기 쌍둥이 막심과 아르좀의 엄마 아나스타샤 구리나는 "쌍둥이들이 태어난 후부터 매년 이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가 오레쉬나(메트로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美 최초 인쇄도서 사상 최고 150억원에 팔려

미국 최초의 인쇄 도서 '베이 시편집'(사진)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1416만5000달러(약 150억3190만원)에 낙찰됐다. 인쇄된 책 가운데 역대 최고가다.

소더비는 이날 최초 경매가 600만 달러로 시작한 '베이 시편집'이 약 5분 만에 미국인 금융가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에게 낙찰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액은 2010년 1150만 달러에 팔린 미국 조류학자 존 제임스 오듀본의 '미국의 새들' 사본에 기록됐다. '베이 시편집'은 17세기 청교도 정착민들이 만든 책이다. 1640년 당시 미국의 매사추세츠만 케임브리지에서 제작됐다.

소더비 관계자는 "현존하는 사본 11점 가운데 지난 100년간 두 점이 팔렸다"며 "매우 희귀한 서적"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코스닥
2028.81 (+6.17)	511.65 (+1.10)
금리	환율
2.97 (+0.05)	1062.50 (+2.50)

내년 전국 아파트 27만가구 입주 4년래 최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7만여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43.3% 늘어난 것으로 4년만에 최대치다.

27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458개 단지 27만7404가구다. 올해 19만3552가구보다 8만3852가구 증가해 30만1746가구를 기록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다.

월별로는 6월이 3만9328가구로 가장 많았고, 8월 3만368가구, 9월 2만9589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7월이 1만4860가구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만5991가구로 올해보다 2만5878가구가 증가한다. ▲서울 3만6817가구 ▲경기 6만7471가구 ▲인천 1만1643가구로 집계됐다.

또 내년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9만6165가구 기타 지방 지역에서는 10만2248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박선옥기자

뉴스&뉴스

"6070패션 따뜻해요" 27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에서 딜모자 등 복고풍 스타일을 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조업 경실사지수 하락

●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넉 달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자료에 따르면 11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78로,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업황 BSI는 6월 79에서 7월 72로 떨어지고서 8월 73, 9월 75, 10월 81 등 석 달 연속 상승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아래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951

발행인겸편집인	김 균 호
사장 편집인	김 승 한
편 집 국 장	조 민 호
부산지사장 겸대	김 원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51

1999년 5월 3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라00161 1999.09.09

미분양털이 '60% 할인'도 등장

건설사들 '재고 아파트' 연내 정리위해 마케팅 총력

건설사들이 주택 시장 침체로 쌓여있는 아파트 미분양을 털기 위해 할인 판매, 금융 혜택, 전세 전환 등 갖가지 마케팅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 지연으로 가뜩이나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올해 말 종료될 경우 내년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미분양을 털어내고자 할인 분양을 선택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보통 20~30% 수준에서 깎아주곤 하지만 최근에는 60%가 넘는 통 큰 할인도 등장했다.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는 일부 대형 주택형에 최대 64%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 중이다. 최초 분양가가 10억원을 웃돌았던 전용면적 189㎡는 지금 4억4000만~5억원에 팔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고양시 삼송지구 A-8블록에서 분양한 '삼송 아이파크'는 최초 분양가에서 최대 1억원을 할인해준다.

우림건설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선보인 '상암 카이저팰리스'는 분양가보다 15~20%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두산건설이 양천구 신정뉴타운 1-2지구에 짓는 '신정뉴타운 두산위브' 전용면적 107㎡는 최대 2억6000만원 내린 4억8100만~5억2800만원에 계약할 수 있다.

직접적인 할인 분양이 부담스러운 대부분 건설사들은 금융 혜택, 무료 발코니 확장 지원 등을 통한 간접 할인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경기도 김포에서 분양 중인 '김포풍무 푸르지오센트레빌'은 최근 계약 조건을 변경,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100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 '텐즈힐'과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 'DMC가재울4구역'은 중도금 무이자는 기본,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해준다. 특히 DMC가재울4구역은 시스템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최초 분양조건이 변경될 경우 완화된 분양 조건을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키로 했다.

미분양 판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현재 한화건설이 경기도 김포 풍무지구 '한화꿈에그린 유로메트로'를 전세로 주고 있으며, 동부건설도 인천 계양구 귤현동 '계양센트레빌' 일부 가구를 전세로 전환했다. /박선옥기자 pscs1@metroseoul.co.kr

정부 기업은행 지분 첫 매각

정부가 보유 중인 기업은행 지분 일부에 대한 매각 의사를 밝힌 지 7년 만에 첫 번째 매각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보유 지분 2324만 주(4.2%)에 대한 매각 작업을 27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된 주식 매각 가격은 1만1400여원으로 전날 종가인 1만2000원보다 5% 할인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정부의 기업은행 주식 취득 가격(7968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김형기자

"접었다 폈다~" 재주 부리는 전기차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관람객들이 접이식 초소형 전기차를 관람하고 있다. 작은 사진이 완전히 접힌 모습. /뉴시스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사이 '줄타는 증시'

전문가들 "당분간 힘겨루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 간의 '힘겨루기'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적완화 축소 현실화 공포가 줄어들수록 경제지표의 시장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양적완화 축소 현실화 우려는 단기변동성 확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양적완화 축소가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단기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춘표 BS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가능성이 둔화될 여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올 4분기 미국 경기 개선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글로벌 경기 회복론과 함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양적완화 조기 축소 명분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은 부양정책 수단의 조합, 즉 양적완화와 양적완화 축소 후에도 제로금리 장기간 유지 조합을 아주 상당한 기간 남겨둘 수 있다"면서 "연준은 상당히 오랜 기간 부양적인 상태로 남겨둘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양적완화를 축소하기 전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로금리 장기화를 선제적으로 적극 강조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김민지기자

가치주·롱숏펀드 웃었다

고위험 지친 투자자들 올들어 '안정수익' 매력에 몰려 ··10~20% 선방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시기 등을 놓고 안개 낀 장세가 이어지면서 고위험·고수익 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꼽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펀드 시장에서 가치주펀드들은 각각 설정액 1조~2조원대의 공룡 펀드로 거듭났고 롱숏펀드에는 1조원 이상 자금이 새로 들어왔다.

27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가치주펀드에 연초 이후 8911억원이 순유입되면서 총 순자산이 7조4077억원으로 늘었다.

롱숏펀드에는 올 들어 1조639억원이 들어오면서 총 순자산이 1조3134억원이 됐다.

가치주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저평가된 기업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 롱숏펀드는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사고(롱·Long), 하락할 것 같은 종목을 미리 파는(숏·Short) 전략을 쓴다.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가치주펀드에서 개별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한국밸류10년투자100세행복증권투자신탁 1(주식)(A)',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이 올 들어 13~21%의 양호한 수익률을 올렸다.

유로존 위기 등 경기 침체로 고전한 최근 3년 수익률을 보면 '삼성중소형FOCUS증권투자신탁 1(주식)' 등 중소형주에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좋은 편이다.

롱숏펀드 중에서는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상품의 여러 유형들이 올 들어 9~10%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다만 이들 펀드도 불확실한 장세에서 완벽한 상품이라고 보긴 어렵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가치주펀드 역시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액티브형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도"라며 "롱숏펀드의 경우엔 절대 수익을 추구하지만 그 수준이 '금리+알파' 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치주펀드의 가입 형태를 적립식으로 할지 거치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증시가 바닥을 쳤다고 판단한다면 거치식 가입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연구원은 "거치식으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일 때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이 시점을 잡긴 어렵다"며 "개인투자자라면 적립식으로 가입하되 운용사별 수익률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벤츠 '뉴S5클래식' 국내 상륙

8년만에 풀체인지 모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27일 '뉴 S클래스'를 출시하며 대형차 시장에서의 뜨거운 격돌을 예고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뉴 S클래스는 전 세계 50만 대 이상 판매된 5세대 모델 출시 이후 8년 만에 풀 체인지된 세대 모델이다.

지난 5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첫 공개된 뉴 S클래스는 ▲최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인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작은 부분 하나까지 완벽을 추구한 고급스러움의 진수 ▲동급 세그먼트 최고의 효율성 테크놀로지의 3가지 우위를 집약해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창업 정신을 대변하는 자동차로 거듭났다.

국내에는 100대 한정으로 특별 생산되는 뉴 S 500 롱 에디션을 포함,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V형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한 S 350 블루텍 모델과 V형 8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S 500 롱 모델, V형 8기통 가솔린 AMG 엔진이 장착된 S 63 AMG 4매틱 롱 등 총 6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윤석헌기자 ferrari@

최신 헤어스타일 "부담되나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27일 열린 '제3회 헤어 인 트렌드' 개막 전 행사에서 모델들이 최신 헤어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차보험료 싼타페 오르고 SM7 내린다

내년 1월부터 126종 변화

내년 1월부터 총 66개 모델의 국산 및 외제 차량 자차보험료가 오르고, 국산차 60개 모델은 자차보험료가 떨어진다.

27일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차량 모델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21개 등급 체계인 차량모델등급제도의 상한 구간에 5개 등급이 추가돼 26개로 조정된다. 또 참조순보험요율 기준 현행 150%인 할증 최고 적용률은 20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산·외제차 206개 모델 중 126개 보험료가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국산차 172개 중 34개, 외제차 34개 중 32개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 한국GM 올란도의 등급이 각각 8등급, 7등급 오르면서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SM7, 카렌스, 뉴프라이드 등은 3등급이 내려가면서 자차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박선옥기자 psoq@

전경련 '뇌물방지' 조치

재계가 글로벌 윤리경영의 트렌드로 자리한 '뇌물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내년에 윤리경영헌장 제·개정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美 해외부패방지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 확산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주연 법무부 검사를 초청해 '글로벌 윤리경영 규범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들었다.

조 검사는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 행위에 관한 규범의 적용 강화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수수법 등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책균기자 kest@

신한銀 모바일토큰 상용화 추진

이통 3사와 양해각서 체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신한은행은 27일 플라자 호텔에서 스마트폰 모바일토큰을 통한 신금융 서비스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모바일토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발표한 공인전자서명인증 기술 규격으로,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의 별도 보안 영역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잇따른 해킹 및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동통신 3사는 USIM 기반의 공인인증 인프라 지원 및 모바일토큰 기술 규격에 준거해 이용 기관용 표준 가이드를 접목, 12월 내 배포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토큰 서비스 이용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토큰은 가장 안전한 공인인증서 보관매체인 보안토큰과 동일한 보안 등급으로 USIM영역에 하드웨어적 보안 모듈을 적용한 것이다. KISA로부터 보안 1등급 매체로 인정받았다.

특히 인증서 이동 없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 인터넷뱅킹뿐 아니라 스마트폰뱅킹에서도 추가 인증 없이 편리하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 거래의 근간으로 제속되는 인증서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OTP와 같은 별도 기기 구입이 필요 없는 모바일토큰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T, 동남아 각국 통신사와 벨소리 공급 계약

KT는 지난 7월 베트남 1위 통신사 비에텔에 K-팝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을 공급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라오스 통신사와 음원 및 영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KT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매출 확대와 통신사 주도의 콘텐츠 글로벌 유통 기회 선점으로 한류 콘텐츠의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베트남 1위 통신사 비에텔에 공급한 K-팝 벨소리·통화연결음은 상용 서비스 개시 1개월 만에 다운로드 1만 건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필리핀 스마트, 인도네시아 엑셀 악시아타에 K-팝 영상 콘텐츠 '한류 파이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캄보디아 메트폰, 라오스 스타텔레콤에도 K-팝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구현모 T&C부문 운영총괄 전무는 "이번 계약은 KT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글로벌 협력 및 신규 콘텐츠 유통시장 개척의 청신호"라며 "KT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 개척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길기자

단언컨대 베가 'R4' 먼저?

팬택 최근 단말기 4종 전파인증 획득… 다음달 출시모델 예측 눈길

팬택이 베가 시크릿노트 효과와 함께 다음달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로 경영 조기 정상화에 나선다. 26일 국립전파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지난 26일 ▲IM-A900K ▲IM-A900S ▲PR-L300K ▲PR-L300S 등 4종의 단말기에 대해 전파인증을 획득했다.

IM-A900의 경우 '베가 R4'가 유력하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작 '베가 R3'는 퀄컴 쿼드코어 스냅드래곤 S4 프로를 채택하고 2GB 램은 탑재해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며 인기를 끌었다. 배터리 완전 충전 시간을 약 100분으로 단축하고,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2포트 충전기도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업계에선 '베가 아이언2'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팬택 측은 '베가 아이언'이 올해 4월 출시된 만큼 얼마 되지 않아 계획대로 내년 초 출시 준비 중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팬택이 새로 출시할 스마트폰이 '베가 R4'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에 출시할 IM-A900 역시 퀄컴 스냅드래곤 805를 채택해 초고화질(UHD) 4K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4.3, 3GB 램, 1300만 화소 카메라를 채택하고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PR-L300의 경우 알뜰폰 전용 모델이나 해외 전용 모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단 PR-L300 뒤에 붙은 K와 S가 KT와 SK텔레콤을 가리키는 만큼 알뜰폰 전용 모델일 가능성이 크다.

팬택 관계자는 "다음달 새 스마트폰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어떤 모델인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다음주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팬택은 지난달 출시한 베가 시크릿노트의 인기와 함께 잇따른 전략 스마트폰 출시로 경영 조기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팬택은 월간 스마트폰 판매량을 20만 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국산 돼지고기 '한돈' 할인해요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국내산 돼지고기인 '한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한돈 주요 부위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재벌 계열사 간 차입액 2조2400억 '18% 증가'

27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51개 상호출자제한 민간 기업집단 중 올해 신규 지정으로 공시가 되지 않은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49개 그룹의 올 상반기 계열사 자금차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73건, 2조244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1건, 1조8976억원에 비해 건수는 4.4% 줄었지만 금액은 18.3%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 차입금은 18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줄어든 것과도 대비된다.

이에 따라 이들 재벌 그룹의 총 차입금 중 계열사 의존도는 작년 0.92%에서 올해는 1.21%로 0.29%포인트 상승했다. /이재영기자

"업종 성공·사회적 환경 관계 되새겼죠"

CEO 추천 '내 인생의 책' 윤상규 NS스튜디오 대표 '아웃라이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을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콤 그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는 특출난 성공 사례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빌 게이츠 혼자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란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게이츠는 1960년대 시애틀의 한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그 학교는 컴퓨터를 갖춘 몇 없는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교조차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게이츠는 남보다 앞선 교육 환경에서 컴퓨터를 익힐 수 있었죠.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 된 환경도 비슷해요. 100%에 가까운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온라인·모바일게임 모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공을 이루려면 개인의 노력만큼 사회적 환경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상규(사진) NS스튜디오 대표는 추천하고 싶은 책 질문을 받자마자 '아웃라이어'를 외쳤다. 최근 열린 1인칭 총격게임(FPS) '크로스파이어'의 후속작 '바이퍼 서클' 설명회에서 만난 그는 모바일게임이 주름잡는 현 게임 시장에서 온라인게임으로 '아웃라이어'가 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 창립 멤버로 출발해 네오위즈 이사를 거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까지 맡은 1세대 벤처 사업가다.

윤 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인 6명과 독서토론 모임을 갖는다. IT업계에 몸담고 있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바쁜 시간을 쪼개 책을 읽는 중이다.

그는 "어느 날 지인들과 모임을 갖던 중 만날 때마다 술 먹는 것은 소모적이다'란 의견이 나왔다"면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독서 토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독서 토론이 거창하고 낯간지럽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토론하는 날이 기다려진다"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책을 읽게 돼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독서 마니아가 된 윤 대표는 임직원 선물도 책으로 한다. 직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선물하기 좋고, 책에 대한 공통된 대화 주제가 생겨 이야기꽃을 피울 수도 있다. 그는 "게임업계는 인문학, 경영학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용자 마음 파악, 게임 줄거리와 캐릭터 설정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아웃라이어의 빌 게이츠 탄생 과정처럼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2000년대에 갑자기 뜬 것이 아니다"면서 "1970년대부터 정보통신 관련 범국가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위치에 오를 수 있었으나, 지금 게임중독법 등으로 게임업계가 침체됐는데 다시 활기를 찾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주목 / 이 신간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 강정식/북씨퍼스

"과거의 관점이던 아이디어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요. 재발견이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174쪽

창의성.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듣고 허공을 쳐다본다. 뛰면 찍힌다는 사회 분위기, 주입식 교육 환경에서 창의성은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 책은 누구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일기획 카피라이터 출신의 저자는 일상 생활 속 창의성 창출 능력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이 책의 부제 '창의성을 깨우는 열두 잔의 대화'처럼 내용은 크게 열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창의성은 시각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로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바르셀로나 철자를 '바르(BAR)' '셀(CEL)' '오나(ONA)'로 떼어 쓴 이 로고는 스페인 방언 카탈란어로 '바르'는 술집, '셀'은 하늘, '오나'가 파도를 뜻한다는 것에서 착안됐다.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인 휴양지 이미지를 굳힐 수 있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해 무언가를 일부러 지어낼 필요는 없다.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사안을 재해석 또는 뒤집어보는 것만으로도 남다른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화제의 책

돈 안들이고 홍보하는 소셜 마케팅 노하우

광고를 이기는 콘텐츠의 비밀 강혁록 외 3인 /가치스커뮤니케이션

'좋아요'를 누르는 글은 따로 있다. 내 블로그에는 왜 방문자가 없을까? 왜 사람들은 내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까? SNS 계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소비자는 모이야 하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 답답해하는 온라인 마케터에게 성공하는 콘텐츠 제작법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는 기획, 글쓰기, 이미지, 동영상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널리 퍼지는 소셜 콘텐츠 마케팅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도배 안 해도 검색 상위에 올라가는 글쓰기의 기술, '좋아요'가 늘고 수십 번 리트윗(RT)이 이뤄지는 이미지 꾸미기, 방문자가 늘어나는 동영상 제작법 등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그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지 초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냈다.

각설하고 페이스북 글에 이미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좋아요'의 개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포토샵이 없어도 무료 프로그램인 포토 스케이프를 이용해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보자. 문구와 이모티콘으로 이미지를 꾸미면 '좋아요'와 댓글이 늘어난다. 저작권이 걱정된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저작권이 소멸된 70만 개의 클립아트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인브랜딩'의 힘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

필립 코틀러 인브랜딩 필립 코틀러 /청림출판

이탈리아 자동차 브레이크 제조사 브렘보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페라리, 포르쉐 등 고급 스포츠카에 주로 장착된다.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최고 성능을 선보이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이 회사는 자동차 경주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튜닝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다.

특히 세계 최고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원(F1)에 참여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현재 인기 게임용 자동차와 모터바이크에도 장착되는 등 브렘보는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는 튜닝 팬들에게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오스트리아 패션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는 패션용품, 액세서리, 보석, 장식용품, 조명산업 등에 크리스털 구성품과 반제품을 공급하는 크리스털 구성품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엘리먼츠'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마케팅을 시도했다.

이 회사는 '크리스탈라이즈드-스와로브스키엘리먼츠로 제작됨'이라는 라벨을 달아 제품에 사용된 크리스털이 스와로브스키엘리먼츠가 제조한 진품임을 증명했다.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스와로브스키의 완벽한 품질과 정교한 기술 그리고 혁신을 상징한 이 라벨은 스와로브스키 제품에 매력을 불어넣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됐다.

'인브랜딩'이란 최종 제품에 기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를 마케팅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브랜딩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통념을 깨고 브랜드의 경계를 재정의해준다.

세계적인 마케팅 대가 필립 코틀러의 최신작이다. /박성훈기자

직장인을 위한 신간

화폐전쟁 쑹훙빙/랜덤

국제 경제 전문가인 저자는 스페인과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제위기는 유럽 대 미국의 화폐 전쟁 속에서 악화됐다고 말한다. 선의 앞에 우방도, 적국도 없다는 냉정한 국제 논리 속에서 벌어지는 달러와 유로화의 각축전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중국인 저자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속 중국의 대처 전략도 소개한다.

작사 돌아는 카페 전기홍/마일스톤

가히 카페 공화국 시대다. 대기업 마케팅팀 출신 저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투잡으로 카페를 창업한 사례다. 놀랍게도 카페는 창업 3개월 만에 4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다. 저자는 카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카페 창업 매뉴얼을 제시한다. 카페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유용한 실전 전략을 소개했다. /장윤희기자

인터파크투어 '땡처리 항공권' 떴다

일반티켓 대비 90% 저렴 원스톱 예약서비스 추가

해외여행을 즐기는 여행 고수들이라면 조기 예약이나 항공사 특별 프로모션·땡처리 항공권·마일리지 이용 등 남들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즐기는 노하우가 있다. 그중 땡처리 항공권은 가장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긴급 땡처리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선구매한 그룹 항공권을 출발일이 임박해 긴급하게 소진해야 할 경우 땡처리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이 땡처리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같은 일정, 같은 노선도 최고 90% 이상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투어는 실시간으로 원하는 일정과 좌석을 검색하는 '원스톱 항공권 예약 서비스'에 지난 25일부터 긴급 땡처리 항공권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땡처리 항공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예약 페이지로 가서 따로 조회 및 예약을 해야 했지만 원스톱 항공권 예약 서비스에서 일반 항공권과 동시에 조회되면서 고객들의 예약과정이 간소해졌다.

인터파크투어 양승호 상무는 "늘 여행을 꿈꾸는 '잉버드족'이나 '땡처리족' 같은 자유여행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편리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해욱기자 amyu@

너무 쉽다, 유럽 자유여행

티켓·가이드·일정 고민 끝 '이지 고잉 트래블' 벤처 다양

외국 항공사의 국내 취항과 유럽 여행의 거품이 빠지면서 유럽 여행이 최근 전 세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tvN '꽃보다 할배'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50~60대의 자유 배낭여행이 늘고 있다.

이처럼 다시 떠오르는 유럽여행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지 고잉 트래블(Easy going Travel)'이 아이템이 눈에 띈다.

◆사전 구매로 시간 절약하는 소쿠리패스

'꽃보다 할배' 파리 편에서 루브르 박물관 입장권을 사기 위한 긴 대기줄이 방송된 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 절약 여행 상품인 '소쿠리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쿠리패스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8개국 10개 지역의 교통패스와 관광명소 티켓 등 다양한 패스를 취급하고 있는 패스 전문 여행 쇼핑몰이다. 특히 '파리 뮤지엄패스'는 파리 시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 60여 곳을 입장할 수 있는 패스로 한국에서 미리 구입할 경우 현지에서 전용 입장구로 바로 입장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 또 2일, 4일, 6일권으로 구성돼 있어 각 패스에 표기된 날짜만큼 사용 가능하며 개별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보다 최대 60%까지 저렴하다.

◆가이드 비용 공짜인 '팁 투어'

현지인 가이드의 안내로 체코 프라하를 여행하고 느낀 만큼의 팁만 내면 되는 독특한 투어 프로그램인 '팁 투어'도 등장했다.

프라하 현지 교민들로 이뤄진 국내 최초 팁 투어 팀 'RuEsp'는 체코 프라하 지역의 가이드 투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사전 예약이나 신청 없이도 주중 하루 2회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가면 참여할 수 있다.

◆든든한 스투비 플래너·투어헬퍼

여행 코스와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 기능이 특징인 사이트도 있다.

'스투비 플래너'는 여행을 테마로 여행객들을 이어주는 소셜 사이트로 회원들의 여행 코스와 일정이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돼 회원이 다른 회원의 여행 멘토가 되는 것이다. 지도에 여행지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경로와 일정, 교통편을 추천해줘 여행 계획을 쉽게 짤 수 있다.

가이드북을 대체할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투어헬퍼'는 한국에서 콘텐츠를 내려받으면 현지에서 데이터 사용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럽 여행 정보 앱이다. 유럽 10개국 100개 도시에 대한 지도와 여행 팁, 관광지, 숙소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한국의 무술가족이 전세계를 폭소로 뒤흔들었다

SHOW DOCTOR

광화문점

블랙'스미스 & JUMP

연인 패키지(2인)

JUMP VIP석 2매 + 블랙'스미스 2인 식사권

~~170,000원~~ → **119,000원**

오순도순 패키지(1인)

JUMP R석 1매 + 블랙'스미스 1인 식사권

~~70,000원~~ → **56,000원**

* 오순도순 패키지 4인 이상 구매시 와인 1병 제공!

정동점

BEANSBINS COFFEE & JUMP

2인 와플 패키지

JUMP VIP석 2매 + 아이스크림와플 + 음료 2잔

~~143,500원~~ → **100,000원**

음료는 5,000원 이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1인 음료 패키지

JUMP R석 1매 + 음료 1잔

~~55,000원~~ → **44,000원**

* 음료패키지 구매 시 와플 10% 추가 할인!

정동점

BONAPPETIT & JUMP

커플 패키지(2인)

JUMP R석 2매 + BONAPPETIT 2인 식사권

~~182,500원~~ → **130,000원**

오순도순 패키지(1인)

JUMP R석 1매 + BONAPPETIT 1인 식사권

~~80,000원~~ → **64,000원**

* 오순도순 패키지 4인 이상 구매시 피자 1판 제공!

모든 패키지 구매자에게 와인 1만원 할인권을 드립니다!

* 패키지 상세 내용은 예감&점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식사권 문의&구매 | 쇼닥터 02-318-0279 * 뮤지컬 〈점프〉는 경향아트힐에서 오픈런 공연 중입니다.

오리지널 '맘마미아' 왔다

아바노래 원어 그대로 도나역할 맡은 포이저 "첫 내한공연 가슴 따뜻"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오리지널 첫 내한공연을 연다.

메릴 스트리프 주연의 동명의 영화로 유명한 이 뮤지컬은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로,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후 400개 주요 도시에서 5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초대형 히트작이다.

국내에서도 2004년 1월 25일 한국 초연이 이뤄진 후 10여 년 동안 한국 공연 역사상 최단기간 1200회 공연, 150만 관객 돌파라는 기록을 썼다.

이번 내한공연은 한국 공연 10주년 기념으로 영국 오리지널 공연팀을 초청해 성사됐다. 웨스트엔드에서 숙련된 배우들이 '댄싱퀸' '아이 해브 어 드림' 등 아바의 노래들을 원어 그대로 들려준다.

영화에서 스트리프가 연기했던 주인공 도나 역을 맡은 사라 포이저는 27일 열린 프레스콜에서 "내한 첫 공연은 가슴 따뜻한 경험이었다"면서 "도나 역은 스트리프가 연기하기 전부터 내가 했기에 나만의 도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개막한 이 공연은 내년 3월 23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열린다. 문의 1544-1555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27일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뮤지컬 '맘마미아' 내한 공연 프레스콜에서 영국 오리지널 공연팀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54화 글 그림 이기

RIDIBOOKS 전자책은 리디북스에서 제공합니다

보타리 중사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고문당한 검체럼 안색이 좋지 않고 넋이 빠져 나간 듯 보였다

시작하지 중사!

어서 저 여자를 강간하라

무슨 짓을 당한거죠? 유감이군요, 중사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을 이랄 보르코시건 제독의 포로입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tvN

논두렁에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

숨은 시골 보컬을 찾아라!

본격 뮤직리얼로드

팔도 방랑밴드

뽀얀 초당두부 맛볼까 빨간 머루와인 취할까

관광공사 추천 음식체험여행 3가지

음식에는 만드는 이의 정성과 비법이 담겨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이나 건강식의 제조 과정을 알고 나면 음식에 대한 맛과 이해가 더욱 깊어진다 맛에 대한 궁금증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음식 체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관광공사는 먼저 세계가 인정한 명품 인삼을 만날 수 있는 정관장 인삼박물관을 추천했다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박물관에서는 110년의 홍삼 가공 노하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 60개국에 수출되는 최상의 홍삼 제조 과정을 둘러볼 수 있다 또 박물관 관람과 함께 홍삼 제품을 시음할 수 있으며 주변에 국립부여박물관과 백제문화단지 등이 있어 겨울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강릉시에서는 신선한 콩으로 만든 강릉 초당두부를 맛볼 수 있다 두부는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단골 메뉴로 강릉은 초당두부만 만들어온 마을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강릉 앞바다의 1급수 해수로 두부를 응고시켜 맛의 깊이가 다른 초당두부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제조법으로 제조되는데 강릉에서는 이런 제조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머루와인동굴에서는 해발 450m 동굴에서 익어가는 머루 와인을 즐길 수 있다 동굴은 무주에서 생산된 머루와인을 보관하고 있는 와인 셀러로 이곳에는 10종류의 머루와인 2만여 병이 숙성되고 있다 머루와인동굴을 방문하면 입장권으로 와인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으며 머루즙을 이용한 머루쿠키 및 쿠키 체험, 와인 족욕도 가능하다 /한제윤기자

별 헤는 겨울밤 빛나는 힐링

황사·장마 '훼방꾼' 없는 이 계절 떠나요, 천문대로!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은 별을 보기에 좋은 계절이다 황사가 심한 봄이나 밤이 짧고 비가 자주 오는 여름에 비해 하늘이 맑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골에만 가더라도 쏟아질 듯한 별을 볼 수 있지만 천문대에서는 좀 더 제대로 별을 감상할 수 있다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밤하늘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움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신비로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천문대나 천체 관측 체험관이 전국 곳곳에 있다

체험학습 포털 위크온의 현성국 본부장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천문대 방문 전에는 미리 일기예보를 확인해야 하고 천문대 대부분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겨울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자리 여행을 떠나보자

◆성남 중원어린이도서관 우주체험관

천체망원경으로 실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첨성대교실은 물론 진공실험 등이 가능한 우주 체험물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또 전문 관련 교육을 하는 나로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우주를 주제로 한 3D 입체 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천체투영실에서는 편안하게 누워 원형 돔에 투영된 천문 우주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고 야간 천체 관측도 가능하다

◆양평국제천문대

양평국제천문대는 다양한 천체 체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대상 프로그램인 곰대장의 별자리 여행이 대표적이며 단계 프로그램이나 1박2일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또 천문대는 아마추어 천문인을 위해 관측실습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별을 보기 전 양평의 명소인 두물머리와 세미원 등을 방문할 수 있어 겨울 여행으로 안성맞춤이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는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서 맑은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주 관측실에서는 60cm 반사 망원경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을 밤에는 별 행성 달 성운 성단 등을 관측할 수 있다 게다가 보조관측실에는 굴절반사식 망원경과 굴절망원경 쌍안경 등이 갖춰져 있으며 전시실에는 세계의 고대 우주관과 한국의 고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전시돼 있다 인근에는 중앙탑 고구려비 등의 문화유산과 문성자연휴양림, 봉황자연휴양림 계명산자연휴양림 등의 자연휴양림이 있어 색다른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

스타파크는 칠갑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주 관측실에는 국내 최대 구경인 300mm 굴절망원경이 설치돼 있어 행성 위성 이중성 성운 성단 등을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다 게다가 천문대 주위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칠갑산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인공호반 천장호가 칠갑산과 더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별을 제대로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 야간 입장권은 매표소에서 당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1일 100명)으로 발매하며 전화 및 인터넷 예매는 불가능하다

◆영월 별마로 천문대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뜻을 가진 별마로 천문대는 해발 약 800m의 봉래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천체 관측을 하기에 훌륭한 여건을 자랑한다 주 관측실에는 800mm 리치크레티앙 반사망원경이 설치돼 있으며 보조관측실에도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 등 다양한 망원경이 있다 천문대가 위치한 봉래산 정상에는 활공장이 있어 넓은 시야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영월 읍내의 야경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유게윤기자 hoyu@metroseoul.co.kr

구석구석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날짜 11월 30일~2014년 1월 5일
장소 부산 중구 광복로 일원

축제에서는 높이 20m에 12면의 삼각형이 연결된 별 모양으로 조성된 메인 트리를 만날 수 있으며 트리 밑을 걸으면서 하늘 위 '성탄의 별' 모양을 바라볼 수 있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 화려한 주제의 빛 터널을 비롯해 테마가 있는 포토존 성탄가족음악제 광복동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2013 Seoul Art Space Festival 서울시창작공간페스티벌

◆서울시창작공간페스티벌

날짜 11월 28~30일
– 장소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의 활동 성과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각기 다른 개성으로 시민과 예술가를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전시 및 작술생사 공연 아트마켓, 체험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됐다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날짜 11월 28일~12월 1일
– 장소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국내 최초의 레저선박 전문 산업전시회로 올해는 20개국 150개 업체가 참여한다 전시장에는 150여 척의 국내외 요트들이 전시되며 카누 카약 수상 자전거 딩기요트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마린룩 패션쇼, 선상요리 시연회 등이 펼쳐진다

"막차 탄 캐스팅… 연구원 연기 부담 컸죠"

오늘 개봉 '열한시' 최다니엘

배우 최다니엘(26)은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다. 순박한 연극을 하다가도 무서운 눈빛을 내뿜으며 작품마다 변신을 거듭한다. 평소에도 장난기가 넘치다가 이내 인생의 굴곡이 남긴 듯한 진지한 말을 내뱉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을 지녔다. 한국 영화에서 처음 시도하는 타임스릴러물 '열한시'(28일 개봉)에서도 색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CG작업으로 상영 늦어져

이 영화는 시간 이동 프로젝트 연구원들이 24시간 뒤로 시간 이동을 한 미래에서 가져온 폐쇄회로(CCTV) 속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시간을 추적한다는 내용이다. 최다니엘은 위험 속에서 시간 이동 프로젝트에 집착하는 우석(정재영)과 대립하는 연구원 지완 역을 연기했다.

시간이동 스릴러물… 결과 만족 패스트푸드 같은 작품 만들래요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훈남 의사로 눈도장을 찍은 뒤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이혼 불허 의뢰인 상용, '공모자들'의 두 얼굴의 소유자 상호까지 차근차근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온 그가 이색 장르에 도전했다. 이번 영화는 '시라노…'를 함께 한 김현석 감독과 두 번째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다.

"사실 크랭크인 일주일 전에 다급하게 출연 제의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연기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연출을 맡은 김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출연을 결정했어요. 역시나 다행히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만약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출연하지 않았을 지도 몰라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우여곡절은 많았다. 지난해 여름에 촬영이 끝난 이 영화가 컴퓨터그래픽(CG)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개봉이 계속 늦춰져서다. 1년 만에 관객에게 선보이게 됐다는 그는 "사실 촬영 당시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정재영 선배는 수다쟁이

그래도 촬영 분위기만큼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영화보다도 좋았다고 털어놨다. 한여름 두 달간 부산 해운대 근처의 한 숙소에 머물며 삐어 자연스럽게 단합이 됐다.

"해운대 바다 앞에서 술도 마시고 마피아 게임도 하는 등 재미있게 놀면서 촬영했죠. 특히 재영 선배와 가장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은 극중 연인으로 출연한 (김)옥빈이가 '남자들만 뭉쳐서 논다'고 투덜대더라고요. 하하하."

남자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놀았냐고 묻자 "음담패설"이라고 너스레를 편 최다니엘은 정재영에 대해 "촬영을 할 때는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지만 평소에는 영화 속 상남자 같은 모습과 달리 수다도 많고 오지랖도 넓고 장난이 심하다. 특히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서 매일 저 방 문을 두들기곤 했다"고 말했다.

#배역·실제 분리하는 편

라디오를 진행해본 경험 덕인지 배우를 적절히 섞어 논리적으로 말하는 말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5월부터 KBS 2FM '가까이 최다니엘입니다' 통해 처음 DJ에 도전했던 그는 한 달 전부터는 같은 채널의 '최다니엘의 팝스'로 자리를 옮겨 말솜씨를 유감없이 발휘 중이다.

"배역은 실제와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인데, 배우라서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청취자들의 이런저런 사연을 듣다 보면 냉수 먹고 속 차린 기분이죠."

겉으로는 장난기가 넘쳐 보이는데 사람과 인생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좋은 열기가 끓어오르는 이십대 답지 않게 꽤나 생각이 깊다. 관객을 끌기 위해 자극적으로만 포장된 영화들이 쏟아지는 요즘 영화계 현실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란다.

"최근 제 위치에 대해 자각하면서 배우로서 패스트푸드 같은 작품을 선보이고 잇속을 챙기는 게 과연 좋은 걸까 하는 자문을 하게 됐죠. 어떤 영화들은 1차는 소비자에게 2차는 배우들에게 피해를 줘요. 돈보다 중요한 건 영화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늘 지키고 싶어요." /박지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황성운(이)기 · 디자인/박은지

star bag

연습생 시절 만나 3년째 열애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가 YG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최필강과 3년째 열애 중이다.

열애설이 불거지자 27일 제아의 소속사 내가네트워크 측은 "두 사람은 연습생으로 있을 당시 처음 만났으며, 3년 전 연인으로 발전했다"면서 교제를 인정했다. 최필강은 제아보다 두 살 위인 1979년생이다.

"어어니 폭행이라니" 강경 대응

가수 장윤정이 한글컴 전 회장 손모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27일 "장윤정이 고소당한 건 맞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손모씨는 "장윤정이 어머니 육씨를 상대로 감금 및 폭행, 협박 등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세살 연상 사업가와 내달 결혼

배우 김연주가 다음달 세 살 연상의 사업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27일 소속사에 따르면 김연주는 다음달 6일 신라호텔에서 서른세 살 지모씨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랑은 중견 종합 건설사 D기업 회장의 자녀으로,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연주는 1999년 제43회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MBC '슬픈 연가'와 tvN '미원사랑' 등에 출연했다.

'발라드&뮤지컬 콘서트' 개최

JYJ의 김준수가 다음달 30~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13 시아 발라드& 뮤지컬 콘서트 위드 오케스트라 Vol. 2'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 김준수는 자신이 출연한 주요 뮤지컬 넘버와 [illegible] 수록곡, 드라마 OST를 비롯해 평소 즐겨 부르는 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오케스트라와 밴드의 연주에 맞춰 100% 라이브로 진행된다. 한편 김준수는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의 개막(다음달 16일)을 앞두고 있다.

유튜브 K-팝 뮤비 'YG 천하'

씨엘 1위·싸이 2위 등 소속가수 톱6 휩쓸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가수들이 유튜브 K-팝 차트 뮤직비디오 차트 1~6위를 휩쓸었다.

11~25일 집계된 유튜브 뮤직비디오 차트 순위에서 2NE1의 신곡 '그리워해요' 뮤비가 정상에 올랐다. 씨엘의 누드 연기로 화제를 모은 이 뮤비는 공개 일주일째인 27일 조회 수 511만 건을 돌파했다.

2위는 국제가수 싸이(사진)의 '강남스타일' 뮤비로 18억 뷰를 넘어 20억 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음은 '디다'(400만 건), 싸이의 '젠틀맨'(5억9000만 건), 태양의 '링가링가'(610만 건), 지드래곤의 '니가 뭔데'(320만 건) 뮤직비디오가 그 뒤를 이었다.

YG는 "20위 안에 1~6위를 포함해 YG 소속 아티스트의 곡이 과반을 넘는 11곡이 올랐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안기를 실감케 한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

"사람냄새 나는 리얼예능"

'1박2일' 시즌3로 돌아와 "김주혁·정준영 상반 매력"

6년 장수 예능 프로그램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이 '따뜻하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시즌 3'로 돌아왔다.

'1박2일 시즌 3'는 기존 멤버 김종민과 차태현에 김주혁·데프콘·정준영·김준호 등 새로운 얼굴이 합류한다. 27일 여의도에서 만난 서수민 팀장은 "리얼 예능은 물론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기자들이 여행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발생하는 에피소드는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즌 3에서 예인 PD로 전격 발탁된 것과 관련해 유호진 PD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된 건 시즌 1 초반에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시즌 1~2에서 끌어온 여섯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우정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다"며 "여기에 복불복 게임으로 예능적 측면을 계승해나가야 방송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녹화를 진행한 '1박2일 시즌 3' 출연진 데프콘·김준호·정준영·김주혁·김종민·차태현(왼쪽부터).

시즌 1·2와의 차별점에 대해 유 PD는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에 따라 느낌은 다르다"며 "새로운 멤버들의 좌충우돌한 갈등, 우정 그리고 세세한 감정의 흐름과 디테일을 잡아내기 위해 관찰 장치와 구성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가장 기대되는 새 출연진으로 김주혁과 정준영을 꼽았다. 유 PD는 "네 명(김주혁·김준호·데프콘·정준영)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김주혁은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 첫 출연이고 주변에서도 유머와 센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미국식 유머를 발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준영은 김주혁과 가장 반대로 여리고 4차원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만 꾸미거나 계산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며 "김주혁과 상반된 리얼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박2일 시즌 3'는 다음달 첫 방송된다.

/탐세윤기자 sjw@metroseoul.co.kr

와! 리니지 매출 2조 온라인 게임 새역사 썼다

숫자로 보는 리니지

◆2조원 리니지 누적 매출
–국내 개봉 역대 1000만 관객 영화 9편 모두 더하면 7740억원
–소녀시대, 보아 등 K–팝 대표 주자 SM엔터테인먼트 2012년 매출 1686억원 VS 리니지 2012년 매출 2049억원

◆49만 2012년 '격돌의 바람' 업데이트 후 신규 가입 및 휴면 복귀 계정 수
–2013년 기준 제주도특별자치도 인구 58만 명, 포항시 인구 52만명
2012년 대한민국 출생 인구 49만 명

◆32회 리니지 대규모 업데이트 수
–1년 평균 2회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 MMORPG 업데이트는 일반 소프트웨어와 달리 새로운 온라인게임 하나를 선보이는 정도의 규모

◆ 50개 국내 MMORPG 중 최다 서버 운영
–국내 MMORPG 평균 서버 수 17개
–2013년 50번째 신규 서버 '커츠' 오픈, 15년이 지나도 이용자가 계속 증가

◆22만 리니지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013년 광주 비엔날레 관람객 59일 동안 22만 명, 리니지는 1시간 최속 22만 명

◆69% 리니지를 즐기는 20대 이상 고객 비율
–성인이 즐기는 건전한 여가 문화로 정착

◆30대 리니지를 즐기는 핵심 연령대
응답하라 시대를 살았던 세대로 (경제력을 갖춰)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X세대

◆4983만1484개 리니지 생성 누적 캐릭터 수(국내 기준)
현 대한민국 총 인구 약 5096만 5180명

엔씨소프트, 출시 15주년 행사 사냥터·신규 클래스 변신 예고

우리나라가 온라인게임 강국이 되는 데 초석을 다진 게임으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꼽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5년 전인 1998년 탄생한 리니지는 지금도 온라인게임 액티브 유저라 할 수 있는 10~40 연령대에서 고르게 사랑받는 몇 안 되는 타이틀이다.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콘텐츠인 리니지가 글로벌 누적 매출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단일 게임 최초의 성과다.

엔씨소프트는 27일 성남 판교R&D센터에서 리니지 정식 서비스 1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내 온라인게임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리니지는 1998년 서비스 시작 15개월 만에 최초로 100만 회원 온라인게임 시대를 연 후 2007년 단일 게임 최초로 누적 매출 1조원을 기록한 바 있다.

리니지 액티브 유저 연령 분포

연령	비율
10대	0.52%
20대	26.84%
30대	42.48%
40대 이상	30.17%

이날 행사에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지난 15년간의 의미 있는 성과를 영상으로 조명하고, 향후 진행될 업데이트와 앞으로 변화해나갈 리니지의 비전을 소개했다.

리니지 개발총괄 심민규 PD는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UI) 등 '플레이 환경 개선' ▲기념터 개편, 최강 드래곤 발라카스 등장 등 '신규 콘텐츠 및 스토리 강화' ▲서버 간 PVP 도입, 글로벌 통합 서버 오픈 등 '고객 플레이 영역의 확장' ▲근접 물리전투에 특화된 '신규 클래스 추가' 등 앞으로 진화해나갈 리니지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성구 글로벌라이브사업실장은 ▲자유로운 정액 요금제 도입 등 '고객 멤버십 혜택 강화' ▲고객 게임 기록 조회 서비스, 개인 맞춤형 플레이 가이드 서비스 등 '진화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운영 계정 정책 개편 등 고객 중심으로 변화될 서비스의 비전을 선포했다.

엔씨소프트 최고사업책임자(CBO) 김택헌 전무는 "많은 고객들이 리니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리니지가 20주년, 30주년이 될 때까지 고객들과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온라인게임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성훈기자

수혈로 모금으로 생명 여럿 구한 '리니지 사랑방'

온라인게임 '리니지'는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다. 즉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모여 게임을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게임 본연의 재미는 물론 친구나 손님과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기능도 함께 있는 셈이다. 15년 동안 '리니지 사랑방'에서 생긴 감동적인 스토리도 적지 않다.

2001년 8월 3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리니지를 즐기는 고객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긴급 수혈이 필요했지만 그 고객은 희귀 혈액형인 RH–O형으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리니지 고객들은 채팅창에 RH–O형을 구한다는 문구를 퍼트렸고, 리니지 전 서버에 이 내용이 알려졌다. 그리고 혈액형이 일치하는 한 고객의 수혈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엔씨소프트는 수혈에 나선 고객에게 1년 무료 이용권과 감사패, 그리고 리니지 역사상 단 한 자루만 존재하는 특별한 아이템인 '생명의 검'을 선물했고 많은 리니지 고객들이 이를 축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돈독한 커뮤니티 문화가 생겨났으며 유저들 간 뉴스, 사건, 사고, 일상 등을 서로 활발히 공유하게 됐다.

지난해 1월 31일 리니지의 서버 가운데 바나인 '크리스터'에 '제 아이가 아픕니다!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구개구순열(언청이)로 태어난 아기가 힘겹게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어려운 형편으로 수술비가 모자라 유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아기는 구순구개열 외에도 뇌졸혈 소견 등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였다. 리니지 공식 홈페이지 서버게시판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에 걸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고 모금을 위한 이고라 서명운동에도 들어갔다.

그 결과 불과 며칠 사이에 모금 서명 인원은 목표의 10배인 5000명을 훌쩍 넘었고, 이 서명을 바탕으로 복지 단체 '한국 사회 복지관 협회'의 모금 자격 심사를 통과해 모금이 진행됐다.

한 달 400만원을 목표로 설정된 모금이었지만 시작된 지 108분 만인 오후 1시52분에 5928명의 참여로 모금은 목표액을 달성하고 마감됐다. 아기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리니지 고객들의 따뜻한 마음은 업계에 재차 화제가 됐다.

/박성훈기자

오늘의 리니지 | 너무 소원해서 ♥ | 주술 특결이!

오크 서버의 안타까운 사연

태어난지 40일 밖에 되지 않은 어린 공주님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빨리 회복되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요~

루돌프·눈사람…다 모였니?

크리스마스 분위기 돋우는 케이크 디자인 열전

계속되는 강추위에 27일 전국이 눈으로 덮이면서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외식업계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에 대비해 케이크를 앞다퉈 선보이며 들뜬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맛도 중요하지만 특색 있는 모양과 다양한 종류가 필수다. 각 브랜드에서 선보인 이번 크리스마스 케이크 역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소품을 활용해 각각의 스토리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크리스마스트리, 루돌프, 눈사람 등은 연말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소품이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을 활용해 동심을 자극하는 콘셉트의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러피안 라이프스타일 카페 에티제가 최근 선보인 '크리스마스 포레스트' 케이크는 진한 젤롱 초콜릿 맛을 즐길 수 있는 자허토르테 케이크 위에 신선한 생크림을 듬뿍 올리고 나무와 루돌프 모양의 초를 얹었다. 눈 내리는 숲에서 루돌프가 뛰노는 듯한 느낌을 줘 동심을 자극한다. 사전 예약을 하면 음료 1+1 쿠폰도 증정한다.

겨울에 활동하는 귀여운 동물을 활용해 아기자기한 느낌을 살린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있다.

배스킨라빈스에서 연말을 맞이 새롭게 출시한 '내 친구 아기 물범'은 산타 모자를 쓴 귀여운 아기 물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제작했다. 초콜릿을 활용해 큰 눈망울과 코 등을 꾸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아기 물범처럼 사랑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특히 케이크 안쪽에는 '체리베리 스트로베리' '아몬드 봉봉' 등 2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크리스마스에 많이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어린아이들이 합창을 하는 모습일 것이다.

파리바게뜨가 선보인 '모두 천사들의 합창'은 화이트 스펀지 케이크에 요두크림을 더하고 윗면에 천사 모양의 초와 견과류로 트리·선물 등을 장식해 성탄절에 합창하는 천사들을 연상케 한다.

이 밖에도 부드럽고 촉촉한 롤케이크에 상큼한 요거트 생크림과 딸기를 더한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는 눈 내린 슬로프와 크리스마스트리를 연상케 한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앙증맞은 크기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컵케이크도 출시됐다.

달콤커피가 최근 시즌 한정으로 선보인 크리스마스 컵케이크는 시나몬 파운드에 몸에 좋은 당근과 코코넛 슬라이스를 듬뿍 넣어 고소한 맛을 더했다. /장윤희기자

언니들의 '남다른 브런치'

입소문난 4곳 수소문

아침을 겸해 먹는 점심 식사 '브런치(Brunch)'. 주로 게으른 사람들이 늦잠을 자고 나서 먹는 식사로 여겨지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 브런치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 브런치 카페가 생겨나고 '브런치 맛집'이 인터넷 검색어에 오르내릴 만큼 여대생은 물론 3040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브런치 카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태원 미국식 '수지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브런치 명소'로 주목받는 곳은 이태원이다. 이곳에 자리 잡은 '수지스'는 미국 가정식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에그베네딕트' '오믈렛' '피시엔칩스' '블루베리 팬케이크' 등 다양한 메뉴로 유명한 맛집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미국인을 위해 집에서 먹던 소박하지만 푸짐한 메뉴를 제공하던 수지스는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졌다. 뉴욕에서 즐기는 브런치를 콘셉트로 하고 있어 통유리로 된 창을 통해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테라스로 꾸며진 2~3층은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기 좋다.

◆삼청동 한옥카페 '아티제'

최근 삼청동에 오픈한 카페 '아티제'(사진)는 이색적인 매장 분위기와 수프·샐러드·토스트·팬케이크 등 다양한 메뉴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 다양한 멋을 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매장 2층의 좌석 일부를 한국 전통 좌식으로 꾸몄다. 천장은 1920년대 목조 서까래를 그대로 살려 무게감을 줬으며 은은한 나무 향까지 있어 한층 여유로운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서래마을 이탈리아풍 '스토브'

서울 안의 작은 프랑스라 불리면서 최근 강남권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서래마을에 위치한 레스토랑 '스토브'는 이탈리안 홈메이드 푸드 콘셉트의 브런치를 뷔페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다. 스크램블드에그·치킨요리·샐러드·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가 포함돼 있으며 뷔페 메뉴를 매일 조금씩 바꿔 새로운 느낌을 더해준다. 든든한 브런치 다음에는 와플·컵케이크·치즈케이크·쿠키 등을 즐길 수 있다.

◆가로수길 '노블카페' 웰빙의 맛

가로수길에 자리 잡고 있는 레스토랑 '노블카페'는 캘리포니아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요리인 타코·타코토스·잡채·롤러스 등을 브런치 메뉴로 해 인기를 얻고 있다. 최소한의 양념만을 사용하고 신선한 채소와 엄선한 고기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칠면조·닭가슴살·새우 등 웰빙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들이 많다. /장윤희기자 ummi@metroseoul.co.kr

추위에 손발 꽁꽁? 두피 꽁꽁!

건조한 바람 탓 비듬·각질 늘고 모공 막혀 탈모
두피용 스케일러·팩·에멀전 등으로 관리 신경을

땀과 피지 분비가 적은 겨울철에는 모발 관리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찬바람과 건조한 날씨는 비듬과 각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두피를 청결하게 해야 한다.

두피에 각질이 쌓이면 모공을 막아 염증이 생기거나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피부와 마찬가지로 두피도 일주일에 한 번 딥 클렌징을 해야 한다.

려 '자양윤모 두피스케일러'는 샴푸로는 제거하기 힘든 두피의 묵은 각질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천연 페퍼민트 오일과 율피 추출물 등이 트러블을 완화하고, 콩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민감한 두피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각질·노폐물을 씻어낸 뒤에는 건조해진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한다. 헤어팩을 활용하면 간편한데, 팩 제품을 바르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두드리거나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미장센 '데미지 케어 헤어팩'은 일반 트리트먼트 제품 대비 4배 강한 정전기 방지 효과로 건조한 날씨와 찬바람에 손상된 머릿결을 효과적으로 케어한다. 부드러운 질감으로 손·지성 타입 모발에도 부담이 없다. 샴푸 후 트리트먼트 단계에 사용하면 된다.

머리를 감은 뒤에는 두피를 꼼꼼히 말리고, 오일·미스트 등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특히 손상되기 쉬운 모발의 끝 부분을 중심으로 충분히 바른다.

즈바키 '데미지케어 헤어 에멀젼'은 트리트먼트의 보습력과 헤어 오일의 윤기 강화 효과를 동시에 지닌 제품으로 즈바키 오일 등 고농축 손상 케어 성분이 모발 깊숙한 곳까지 촉촉함과 윤기를 전해준다.

/박지원기자 ppa@metroseoul.co.kr

까탈스러운 캐시미어 "냄새·습기 미워~"

비싼 천연섬유 관리법

캐시미어는 가볍고 따뜻해 겨울에 각광받는 소재지만 약하고 비싸서 관리가 까다롭다.

권영재 웰메이드 프로덕트 팀장은 "캐시미어 제품들은 손질법이 다소 까다롭기는 해도 겨울철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마다 새로 사지 않고도 갖고 있던 캐시미어 의류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오래 유지하며 입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캐시미어는 털의 방향이 가지런하고 잔모가 섞이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한다. 원산지로는 중국 내몽골산이 최상품으로 꼽힌다. 캐시미어는 내구성이 떨어져 다른 소재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시미어 함유율이 최소 30% 이상은 돼야 제품의 촉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천연섬유이기 때문에 하루 걸러 하루 착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탈취제를 뿌려 2~3시간 걸어두고 보관 시에는 습기를 막을 신문지를 끼워둔다. 옷에 젖었을 때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서 가볍게 빗질해주고 보풀이 일어나면 결에 따라 일회용 면도기로 제거한다.

구매 후 처음 세탁할 때는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그다음부터 울 샴푸 등 중성세제로 손빨래한다. 물에 충분히 잠기게 한 채로 30~40회가량 부드럽게 눌러주되 절대 비벼 빨면 안 된다.

헹굴 때도 옷을 그냥 들어 올리지 말고 먼저 옷을 누른 상태에서 물을 따라 버려야 한다.

물기를 뺄 때는 손으로 짜면 모양이 변형될 수 있다. 수건으로 말아 물기를 제거하고, 그늘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옷을 원래 형태대로 펴서 말린다. /박지원기자

자선열차 올해도 '칙칙폭폭' 27일 (…) 14 (…)를 맞이하는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자선열차를 구경하러 온 어린이들이 산타와 산타리나로 분장한 호텔 직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자선열차 행사의 후원한 60여 개사 기업들로부터 조성된 후원금은 복지시설에 전달되며 자선열차 운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계속된다. /밀레니엄 서울 제공

쉐라톤 인천 26일 트리 점등

쉐라톤 인천 호텔이 28일 오후 6시 호텔 로비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는 그동안 쉐라톤 인천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미추홀 합창단 아이들의 캐럴송과 함께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을 밝히는 카운트다운 점등식이 준비되며 점등 후 카드에 소원을 적어 위시트리에 거는 고객에게 크리스마스 쿠키 박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이어진다. 또 독일 전통의 글루와인과 크리스마스 특별 케이크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32)835-1000 /황재용기자

스탠포드호텔 연말패키지

스탠포드호텔서울이 잊지 못할 특별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념할 수 있도록 다음달 20일부터 31일까지 '크리스마스&이어 엔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편안하고 안락한 수면을 제공하는 객실 1박과 크리스마스 스타일의 조식, 영국 왕실로부터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로 지정받은 몰튼 브라운 바디세트, 와인 한 병과 치즈 플레이트가 제공된다. 또 주니어 스위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얼리버드 예약 시 팔러 스위트(Parlor Suite)로 무료 업그레이드 및 엔하단 디너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2)6016-0001 /황재용기자

세바른병원 강서 척추강좌

세바른병원 강서점이 28일 오후 3시 본원 10층에서 무료 척추강좌를 개최한다.

'척추질환의 증상과 원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좌는 환자와 지역주민에게 추운 날씨 속에 더욱 악화되기 쉬운 척추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훈 세바른병원 강서점 신경외과 원장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김훈(사진) 원장은 "척추질환은 대부분 허리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고 있지만 질환마다 증상에 차이가 있어 치료 방법도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질환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티아라 목걸이+향수' 크리스마스때 줄게

제이에스티나 한정패키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2013년 크리스마스 퍼퓸 리미티드 패키지를 출시한다.

올해 베스트 주얼리 '델리케이트 티아라 네크리스'와 'JE 퍼퓸(Parfums)'향수 론칭 이후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쥬 데 플뢰르' 등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선물로 꼽히는 주얼리와 향수를 모두 담아낸 패키지다. 정품을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14만원)에 만나볼 수 있다.

제이에스티나 '델리케이트 티아라 네크리스'는 제이에스티나를 상징하는 티아라 펜던트가 돋보이는 디자인에 티아라 라인을 따라 스톤이 섬세하게 세팅돼 있다.

이번 패키지는 28일부터 제이에스티나 전국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한정으로 선보인다. 문의 www.jestina.co.kr 080)998-0077

/박지원기자

K-리그 득점왕 싸움 끝나봐야 안다

김신욱 19골 선두지만 데얀 포항전 1골 추가 18골 추격…4경기씩 남겨둬

울산 김신욱

서울 데얀

진격의 거인 김신욱(25·울산 현대)과 골신 데얀(32·FC 서울)이 K리그 클래식 득점왕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대접전을 벌이고 있다.

8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을 기대하고 있는 울산 현대의 김신욱이 생애 첫 득점왕 타이틀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와 2011년 2연속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데얀도 사상 최초 3연패를 노린다.

현재 김신욱은 19골을 기록하며 울산 현대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11월 2자례 A매치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김신욱은 197cm의 큰 키를 활용해 8골을 헤딩으로 만들었고 발로 11골을 만들어내며 헤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 단 큰 키가 강점인 김신욱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페널티 박스 밖에서는 1골도 만들어내지 못해 중거리 슛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프로축구 전적			27일
포항	3	1	서울
전북	2	2	대구
경남	1	1	대전
수원	1	0	전북
부산	2	1	울산
경남	0	1	성남

김신욱과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데얀은 넓은 활동 반경이 최대 장점이다. 페널티 박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18골을 쏘아 올렸다. 상대 수비가 긴장하며 애를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10골을 넣었다. 또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아크 지역에서도 2골을 뽑았다.

최근 4경기에서 3차례 멀티골(7골)을 터뜨리며 뛰어난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데얀은 27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1골을 추가하며 김신욱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다만 데얀은 187cm의 큰 키를 갖추고 있지만 헤딩골이 하나뿐에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온몸이 무기인 김신욱과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하는 데얀의 득점왕 경쟁은 다음달 1일 전북 현대·FC 서울·울산 현대·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장해운기자 ysw@metroseoul.co.kr

박병호 2년연속 '황금장갑' 찜!

골든글러브 후보 44명 발표

역대 네 번째로 2년 연속 최우수선수(MVP) 영예를 안은 박병호(27·넥센·사진)가 2년 연속 '황금장갑'의 주인 자리도 예약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3년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수상자 후보 44명을 27일 공개했다.

올해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넥센 히어로즈의 강타자 박병호는 1루수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박병호는 정규시즌 홈런 37개와 타점 117개, 득점 91점, 장타율 0.602 등 4개 공격 부문 정상에 올랐다. 박병호는 김태균(한화), 박정권(SK), 조영훈(NC) 등과 경쟁한다.

2루수 부문에서는 손주인(LG 트윈스)·정훈(롯데)·정근우(한화), 3루수 부문에서는 박석민(삼성)과 정성훈(LG)·김민성(넥센)·최정(SK), 유격수 부문에서는 김상수(삼성)와 오지환(LG)·강정호(넥센)·이대수(한화)가 각각 경쟁한다.

포수 부문에는 강민호(롯데)와 이지영(삼성)·진갑용(삼성)·양의지(두산 베어스)가 지명타자 부문에는 홍성흔(두산)과 이병규(LG)·이호준(NC)·최진행(한화)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장성훈기자

<대한항공-러시앤캐시>

'56-54' 한 세트 최다점수 세계기록 공인

대한항공과 러시앤캐시가 26일 경기 3세트에서 작성한 점수가 한 세트 최다 점수 세계기록으로 공인받을 전망이다.

27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56-54로 끝난 이 기록을 국제배구연맹(FIVB)에 세계기록으로 공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러시앤캐시는 2005~2006시즌 여자부 프로배구 KT&G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나온 한 세트 최다 랠리포인트 기록(42-40)을 갈아치웠다. 또 2002년 이탈리아 프로배구 세리에A의 한 세트 최다 점수 기록(54-52)을 뛰어넘는다.

이 기록 외에 최장 시간(59분), 최다 듀스 횟수(31회), 개인 최다 득점(마이클 산체스·대한항공·31점), 듀스 이후 개인 최다 득점(산체스·22점) 등도 FIVB에 세계기록 공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7일
모비스	15	24	30	22	91
오리온스	19	20	17	14	70
국민은행	15	23	17	13	68
KDB생명	11	9	19	11	50

프로배구 전적			27일
현대건설	2	3	한국전력
삼성화재	3	1	한국전력

"폼은 좋았는데…" 바르셀로나(스페인)의 네이마르 다 실바(왼쪽)가 오버헤드킥을 시도하다 아약스의 스테파노 덴스헤(오른쪽)에게 가로막히고 있다. '무적함대' 바르셀로나는 27일 아약스의 홈구장에서 열린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H조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패배에도 승점 10, 3승1무1패로 조 1위를 유지했다. /암스테르담 연합뉴스

한화 입단 정근우·이용규 "4강 이끌 것"

둘이 합쳐 137억원의 몸값을 받는 정근우(31)와 이용규(28)가 처음으로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착용하고 팀 재건을 다짐했다.

정근우는 27일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한화라는 명문팀에 입단해 영광이다. 신인이라는 자세로 팀이 내년에는 꼭 4강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용규는 아내인 배우 유하나와 발음이 비슷한 것에 착안해 18번을 새 등번호로 택했다. 그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9월 왼쪽 어깨를 수술했는데 내년 3월이면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하니 5월 전에 무조건 복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투지를 보였다.

김응용 감독은 "두 선수는 발도 빠르고 수비력도 최고다. 둘이 합쳐 최다 도루 100개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순호기자 sun@

27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정근우(오른쪽)·이용규(왼쪽) 입단식에서 김응용 감독(가운데)이 두 선수의 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칠면조가 왜 'turkey'일까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오늘은 미국의 전통 명절인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이다. 추수감사절에는 미국인들도 우리 설날, 추석 못지않게 온 가족이 모여 우애를 다지며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한다. 이날 빠지지 않는 요리가 칠면조 구이인데 한 마리가 버거우면 한 조각이라도 먹기에 추수감사절을 아예 칠면조 데이(Turkey Day)라고 부른다.

그런데 칠면조는 왜 영어 이름이 나라 이름인 터키와 같을까? 터키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칠면조는 원산지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다. 영국인들은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새였다. 그런데 예전 영국에서는 낯설고 이국적인 것은 모두 터키라고 했다. 터키를 멀리 있는 나라로 여기기도 했고 종교와 문명이 달랐기에 낯설다는 느낌이 강했던 모양이다. 때문에 칠면조 역시 이국적이라는 뜻에서 터키 닭이라고 부르다가 터키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말 칠면조는 어떻게 생긴 이름일까? 칠면조는 흥분하면 늘어진 목살이 붉고 푸르게 여러 색으로 바뀐다. 때문에 일곱 가지 얼굴을 가졌다는 뜻에서 칠면조(七面鳥)가 됐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만든 이름이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붉은색의 목살에서 불을 연상했는지 불새, 그러니까 화조(火鷄)라고 했다. 조선 후기 문헌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칠면조 이야기가 보인다. 화조는 거위처럼 커다란 것이 맛이 아주 좋다면서 특히 입술에 코가 달렸는데 코끼리의 코와 같아서 자유자재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했다. 낯설었던 모양이다.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명절은 아니지만 칠면조 샌드위치라도 먹으며 올 한 해도 결실에 감사하는 것이 어떨지. /음식문화평론가

날씨

11/28 木 해뜨는 시각 07:25 해지는 시각 17: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지역	기온
서울	-5/3
청주	-4/3
대전	-5/7
전주	-3/2
광주	-3/4
제주	3/5
강릉	-5/1
울릉도	-3/4
대구	-3/3
포항	-2/4
울산	-3/5
부산	-1/6

건조하고 추운 날에는 정전기가 많이 생겨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빗 대신 나무 빗을 사용하면 정전기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시간제 조리원 그만둬야 하나 자꾸 이직하면 빈곤의 쳇바퀴

로마신화 여자 71년
남자 73년

Q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선생님의 상담을 읽으며 출근합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시간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A 벅차면 놓게 된다. 내려놓으면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학 명리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계취한데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데 개념의 이치를 내세우는 것은 현실과는 다소 다른 논리라고도 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무릇 남자라면 거처를 가진 여자라면 어느 경우에도 자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실천력을 높여서는 안 되겠지요. 먹고사는 데, 직장의 정규직을 얻는 데 집중해야 한는 기쁨이 없지 않을까요. 옮겨갔다 한다면 짜증스러운 굴레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사주학에서도 이럴 땐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상담 신청 시 생년월일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인생 사주 궁금 지금은 힘들어도 좋은날 올 것

미래의 눈동자 남자 72년

Q 지난번에 직접 찾아뵙고 괜찮은 상담했었는데요. 여태껏 살아 퀴탄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사주를 알고 싶습니다. 또 재물운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성함은 비공개로 해주세요.

A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겠지만 솔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함께 와서 같이 머물면서도 씨름하듯 서로 엎어치기를 합니다. 르네상스와 신대륙 발견 이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기보다는 기회가 득세하는 흐름기가 더 길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무게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사는 재미를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실존적 체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삶은 괴롭든 그렇지 않든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무(無)니 공(空)이란 말로 진도 다가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에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어 다시 상담 신청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9	
		1		2		3		
7			9	1				
	4				3	8		
	9		1	8	2		5	
		8	4				3	
				7	5			2
		6		3		1		
	5		2					

				1	2			
			4			8		
			8				4	3
	2	5		4				8
6			5		8	9		
7				9		4		5
	9			8	4		7	
		7				6		
		3	1		9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믹스터
(제롬의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신점[神占] 운세 11월 28일(음 10월 26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돈과 관련된 문서 관리 잘하라. 60년생 자명거지는 행감이 밀려든다. 72년생 상사와의 업무 갈등은 무조건 피하라. 84년생 연인에게 원하던 대답 듣는다.

소: 49년생 판자는 생데 호전된다. 61년생 일할 여건이 좋아져 능률 오른다. 73년생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85년생 내가 돈을 써야 할 친구 만난다.

호랑이: 50년생 소일거리 생겨 활력이 넘친다. 62년생 재운이 열려 곳간이 풍성하다. 74년생 없는 집에 제사 많은 격이다. 86년생 생활이 급해도 궁색한 변명은 금물.

토끼: 51년생 웃음에 접근하는 이웃을 경계하라. 63년생 겉은 모란하나 실속이 없다. 75년생 이건 안 좋을 텐 복지부동할 것. 87년생 애정전선에 이상 징후 보인다.

용: 52년생 어렵지만 돌파구는 보인다. 64년생 결단 내릴 땐 과감히 내려라. 76년생 기분 좋게 돈 쓸 일 생긴다. 88년생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으니 걱정하지 마라.

뱀: 53년생 복덩이가 굴러오니 잘 잡아둬라. 65년생 믿었던 측근의 배신에 기가 빠진다. 77년생 말이 잘 풀릴 때 박차를 가하라. 89년생 구직자에겐 희소식이 있다.

말: 42년생 사소한 괴로움은 술이 약. 54년생 귀중품 잃지 않도록 조심. 66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78년생 자하철에선 이성과 떨어져 있어라.

양: 43년생 규식이니 술로 인한 탈 조심. 55년생 멋대로 결정하면 손해 부른다. 67년생 내가 최고라는 생각은 버려라. 79년생 수입이 늘어나니 지갑이 춤을 춘다.

원숭이: 44년생 가슴 따뜻한 이웃 있어 외롭지 않다. 56년생 매매 문서는 신중히 꺼라. 68년생 승진 준비 중인 청룡이 구름 만난 격. 80년생 첫 데이트 약속에 두근두근.

닭: 45년생 심신이 쇠약하니 쉬어라. 57년생 어렵지만 후원하는 세력이 많다. 69년생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는 말 되새겨라. 81년생 말이 늘어나니 스트레스 쌓인다.

개: 46년생 하고 싶은 것이 많아 바쁘다. 58년생 매매나 투자는 한 발 물러나라. 70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돼 즐겁다. 82년생 변화보다 현상 유지가 이로운 날.

돼지: 47년생 가족 배려하는 데 신경 써라. 59년생 묵묵히 땀 흘리면 보수 쏟아진다. 71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언행에 신경 써라. 83년생 능력 발휘할 기회 온다.